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복음과 상담」 제22권 2호(2014): 301-339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정 순 례*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중년부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 수준에 따라서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아탄력성, 성적친밀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부부갈등, 자아탄력성, 성적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부부갈등에서 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독교 중년부부 대상 690명이 조사 실시되었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S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이 부부갈등, 자아탄력성, 성적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자아탄력성과 낮은 성적친밀감은 부부갈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갈등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은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독교 중년부부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부부갈등의 예방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심단어 : 의사소통유형, 부부갈등, 자아탄력성, 성적친밀감, 중년부부

• 논문 투고일: 2014년 10월 15일 • 논문 수정일: 2014년 11월 7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11월 12일

*한국성서대학교. 본 연구는 정순례(2014년 8월, 지도교수: 오윤선)의 한국성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 · 수정한 것임.

www.kci.go.kr

I. 여는 글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를 동시에 이룬 우리사회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과 급격한 변화 및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가족 구조와 기능, 부부관계유형에 있어서도 그 어느 시대보다 다양한 변화를 겪게 하였다.[1]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가족의 기능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소속감과 결속력을 약화시키게 하였다. 통계청(2014)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이혼건수는 11만 5천 4백건으로 OECD 회원국 중 이혼율이 1위에 달한다. 특히 2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의 중년기 부부가 이혼한 경우는 1990년 5.2%에서 2012년 25%로 거의 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13년 6월 대한민국 총인구의 1/3이상에 해당하는 1,795만 명에 이르는 중년들의 이혼증가율은 의사소통문제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2] 최근 부부갈등(marital discord)의 원인으로는 부부관계 갈등영역에서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communication)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과 같은 문제[3]가 제기되면서, 성생활에 대한 불만족과 배우자 외도문제,[4] 원가족의 가족규칙, 가족문화, 생활양식(lifestyle)의 차이와 상충되는 기대욕구 및 가치관의 불일치, 성격차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5] 등이 제시된다.

한국의 부부문제는 기독교인의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을 알 수

---

1) 오윤선, 『힐링과 행복코칭』(서울: 예영 B&P, 2014), 14.

2) 통계청, 인구동향/이혼지표, 2014.

3) 김정민, "Satir 부부관계향상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9권 2호 (2011): 19-40.

4) 이선미 · 전귀연,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5호 (2001): 203.

5) M. Young, G. Denny, T. Young, & R. Luquis, "Sexu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American Journal of Health Studies* 16 (2000): 43-84.

www.kci.go.kr

있다. 비기독교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 부부간에도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외도 문제, 신앙의 차이, 원 가족 문제, 자녀 문제[6] 등 다양한 갈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Satir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부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강조하였고,[7] Gottman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이혼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한다. 그는 부부가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등의 의사소통을 할 때,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을 거치게 된다고 한다.[8] 따라서 중년기 부부들의 결혼생활 만족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상호간에 기능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년기 부부들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ego-resilience)과 성적친밀감(sexual intimacy)이 중요하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완충역할을 한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뛰어나고[9], 부부관계에서 관심과 지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성적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냄을 가정해 볼 때, 중년부부의 부부갈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변인이 된다고 하겠다.[10] 국내외에서 연구된 의사소통은 대개 단일 차원적 접근의 연구[11]

---

6) 이옥선, "크리스찬 기혼 여성들의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화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2010), 73-77.

7) V. M. Satir & J. Banmen, J. Gerber, & M. Gomori, *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Palo Alto, CA.: Science & Behavior books, 1991), 34-42.

8) J. M. Gottman,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993): 6-15.

9) J. H. Block & J. Block,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61 (2006): 315-327.

10) 이희숙, "성인 애착과 결혼 만족간의 관계: 보살핌, 성적친밀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74.

11) 유옥, "결혼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한 신혼기 부부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개발과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0), 1.

www.kci.go.kr

와 부부치료 프로그램 연구에[12] 그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단일 차원적 접근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의 경우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독립변수로 하여 결혼만족도나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연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단일 차원적 접근은 다른 차원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경로들을 분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중년부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 수준에 따라서 부부갈등에 나타난 영향력과 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설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갈등, 자아탄력성, 성적친밀감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갈등, 자아탄력성, 성적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넷째, 기독교 중년부부들의 갈등 치유 및 해결방안 모색과 성숙한 부부생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12) 송정아, "이마고 부부치료 모델 내용의 타당성과 적용 효과성 연구",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4호 (2006): 5-18.

www.kci.go.kr

Ⅱ.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개념 이해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공통 또는 공유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communius'를 어원으로 하고 있으며,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언어적, 비언적인 수단을 통하여 감정, 태도, 사실(정보), 신념, 생각 등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13] 인간은 깨어 있는 동안 50% 이상의 어떤 형태로든 신체언어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더욱 의사소통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까지 95개 이상으로 다양하다.[14]

Satir는 사람들이 긴장할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과 대처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그 가운데 사람들이 공통된 방법으로 긴장을 처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의사소통을 유형화하였다. Satir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을 회유형(placating), 비난형(blaming), 초이성(super-reasonable), 산만형(distracting)이라 분류하였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하는 유형을 일치형(congruent) 의사소통이라 명명하고 다섯 가지의 의사소통 개념을 발전시켰다.[15] 첫째, 회유형(placating)의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며 의존적, 순종적, 희생적이며, 모든 잘못한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

---

13) Irene Goldenberg & Herbert Goldenberg, *Family Therapy: An Overview*, 2nd ed.(Belmont, CA.: Wadsworth Inc., 1985), 75.

14) 오윤선, 『힐링과 행복코칭』, 271.

15) V. M. Satir, *People Making*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1972), 12-13.

www.kci.go.kr

린다. 자신의 가치나 감정은 무시한 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16] 이런 사람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자신이 무조건 참고 견딘다.[17] 둘째, 비난형(blaming)은 타인을 무조건 무시하며, 자신이 틀리거나 약하게 보여서는 안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스스로 강한자로 군림한다. 자기주장이 강하고 지배적이며, 어떠한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 한다.[18] 그러나 이들은 내적인 자원으로 자기주장성과 지도력, 에너지 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초이성형(super-reasonable)의 사람은 매우 정확하고 완벽을 추구하며 냉정, 침착하게 의사소통한다. 그는 결코 감정을 내보이는 일이 없고 계산기에 비유될 정도이지만, 내적으로는 상처를 잘 받으며, 타인을 위한 자신의 정서적 욕구는 숨기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한다. 그러나 이들의 내적인 자원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점과 지적인 자원, 주의집중 능력 등이다. 넷째, 산만형(distracting)은 자기, 타인 그리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의가 산만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 등 모든 차원에서 부적절하여 주위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과 무가치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한다.[19] 그러나 이들의 내적인 자원은 창조성, 융통성, 자발성, 유머감각 등이 있다. 다섯째, 일치형(congruent)의 사람은 내용과 내면의 감정이 일치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일치형 의사소통은 진실하고(real), 현재(now)에 머무르며, 상대방에 대한 반응도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whole)으로, 즉 몸과 감각, 사고와 감정이 모두 일치를 이룬 반응을 한

16) 김영애, 『인간관계 및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사티어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2004), 63.

17) 정순례, "교회 내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2005), 19.

18) V. M. Satir,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한국버지니아사티어 연구회 역, 『사티어 모델』 (서울: 김영애 가족치료 연구소, 2000), 58.

19) 김영애, 『사티어의 빙산의사소통』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2012), 92.

다.[20] 일치적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일치성과 더불어 영적 차원에서의 일치성도 이루어야 한다.[21]

(2) 의사소통의 기독교적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본다면, 첫째는 "긍정적인 대화를 하라" 긍정적 대화는 듣는 사람들에게 격려, 지지, 사랑, 찬사를 보내므로, 소망을 갖게 하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하므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활력이 넘치게 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런 사람은 늘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언어로 인정 있고 사려 깊은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며, 믿음과 용기를 주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는 실천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산다(잠 15:4, 17:9; 엡 2:29, 4:15, 31-32; 벧전 3:10). 둘째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라" 우리 기독교 부부는 서로 서로 필요한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황에 맞는 반응을 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서로를 지지하며, 수용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루에 쌓인 피로도 가족 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을 수 있다.(잠 15:23, 25:11). 셋째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어라" 부부관계의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는 사이가 되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허물을 가려 주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잠 17:9, 20:3; 엡 4:31-32).

넷째, "오직 사랑 안에서 성숙한 언어를 쓰라" 부부관계에서 친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love language)를 알아야 한다. 사랑의 언어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I love you)"라는 말과 서비스(Service), 선물(Gifts), 함께하는 시간(Quality Time), 신체적 접촉(Physical Contact) 등이 있다.[22] 이 때, 상대방의 사

20) 이경순 · 최외선, "효과적인 부부상담을 위한 성숙한 커뮤니케이션 방안모색",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제9권 1호 (2004): 117-133.

21) 김영애, 『사티어의 빙산의사소통』, 88-89.

22) Gary Chapman, *The Five Love Languages*, 최종훈 역, 『게리채프먼의 사랑의 언어』 (서울: 두란노, 2010), 5-15.

www.kci.go.kr

랑의 언어에 맞추는 점이 중요하다. 다섯째,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말라" 비난하는 말이나 훈계하는 것, 비꼬는 말투나 잔소리, 인신공격이나 타인과 비교하는 말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이다(잠 12:18; 전 10:12; 벧전 3:10; 약 4:1). 이런 비판의 말은 상대방의 인격을 해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열등의식을 갖게 한다.[23] 여섯째,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말라" 칭찬과 감사가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창조성이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잠 16: 24). 일곱째,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라"(잠 18:13, 15). 여덟째, "분노의 감정을 다루라" 성경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것을 권고하신다(약 1: 19; 엡 4:26; 잠 16:32, 19:11). 아홉째, "서로 용서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것을 권면하신다(막 11:25; 골 3:13; 엡 4:31–32). 이와 같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셨기 때문이다.[24]

2) 부부갈등

⑴ 부부갈등의 개념이해

현대사회의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잘못된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방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의 태도, 서로간의 긴장상태를 야기하는 성(性)역할, 신앙, 가치관, 욕구, 금전 등의 요소들과 부부관계 외의 외부에서 오는 압력, 결혼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오는 권태감 등을 강조하였다.[25]

---

23) 신연식, 『결혼생활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서울: 기독지혜사, 1993), 235–236.

24) Charles H. Kraft,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박영호 역,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18.

25) G. R.Collins, *Christian Counseling*, 3rd ed., 정동섭 역, 『크리스천 카운셀링』 (서울: 두란노, 2008), 599–600.

www.kci.go.kr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결혼생활에 대한 의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부부간 불화합성을 의미하며,[26] Coleman은 부부간에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라고 부부갈등을 정의하였다.[27] 즉 부부갈등은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서로 상반되는 욕구나 목표가 공존할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 유승하는 부부갈등을 부부 역할분담의 모호성과 역할기대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할갈등과 부부의사소통 갈등,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부차적인 정서적 갈등으로 보았다.[28] 김용수는 부부의 갈등 대처유형, 원 가족과의 관계, 성생활 수준, 경제적, 부부의사소통, 영성 수준 등이 부부갈등의 주원인이 된다고 한다.[29] 부부갈등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첫째, 개인적 요인이다. 부부갈등 수준과 관련된 메타연구에서 부부 구성원 가운데 신경증적이나 부정적인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있을 때[30], 내성적이거나 감성적 성격을 가진 배우자는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억압하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부부갈등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다.[31] 둘째, 부부관계적 요인이다.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가장 많은 영

---

26) F. D. Fincham & L. N. Osborne,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 Retrospect and Prospect,"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1993): 75-88,

27) M. Coleman,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timacy in Married Couples" (Ph. D. diss., Pepperdine University, 1984), 19.

28) 유승하, "부부의 갈등해소양식 변화에 미치는 의사소통 기술훈련과 신념변화 훈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대학원, 1996), 3.

29) 김용수, "성경적 가정을 위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갈등 원인 및 성경적 갈등 해결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2), 9-11.

30) T. D. Allen, R. C. Johnson, K. N. Saboe, E. Cho, S. Dumani, & S. Evans, "Dispositional Variables and Work-Family Conflict: A Meta-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2012): 17-26.

31) 권윤아 · 김득성,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인지행동적관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7호(2011): 67-80.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2] 특히 의사소통의 차이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부부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공격적, 파괴적, 지배적 대처를 사용하는 부부들은 갈등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셋째, 제삼자 관계적 요인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시댁과 처가관계 즉 원 가족과의 관계가 부부갈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원 가족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자아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 역할 정체감이 미분화되었을 때,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4] 넷째, 경제적 요인이다. 경제적 스트레스의 수준이 부부갈등 대처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부부갈등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5]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 외벌이 부부보다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인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6]

(2) 부부갈등의 기독교적 이해

성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의 부부가 시작되었다(창 2:23).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형성하셨고, 결혼은 하나님의 목적이 창조 사역 속에 포함된 것이다. 그 목적은 첫째,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것이었다(창 1:28). 둘째는 인간에게 서로를 돕는 동반자적

---

32) N. Woelz-Stirling, L. Manderson, M. Kelaher, & S. Gordon, "Marital Conflict and Finances among Filipinas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no. 6(2000): 791-805.

33) J. P. Gouin, R. Glaser, T. J. Loving, W. B. Malarkey, J. Stowell, & C. Houts,. "Attachment Avoidance Predicts Inflammatory Responses to Marital Conflict," *Brain, Behavior, and Immunity* 23, no. 7 (2009): 898-904.

34) 김남진 · 김영희,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한국가족관계학회, 「가족관계학회지」 제15권 1호(2010): 197-225.

35) 조준배, "경제적 스트레스요인이 부부갈등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27호 (2009), 153-174.

36) Allen, Johnson, Saboe, Cho, Dumani, & Evans, "Dispositional Variables and Work-Family Conflict," 1680-1683.

www.kci.go.kr

인 관계(창 2: 18)를 허락하기 위함이었다. 셋째로, 결혼을 통해서 부부는 배우자에게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은 성적 연합 또는 한 몸(창 2:24)을 이룸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부의 제도를 창조하여, 부부가 친밀하고 하나 되도록 연합하게 하는 분이다. 그 과정에서 부부는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다(창 2:24). 그러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는 가족을 상징하는 계약과 가족 계약의 중심을 상징하는 소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소명은 개체성과 진정한 결합을 의미하는 친밀한 교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37]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갈등이 처음으로 보고되는 장면이 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아담이 진술하고 있다. 이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할 부부가 나누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경적 부부의 원형이 파괴된 것이다. 이러한 부부갈등의 원인은 인류의 타락과 동시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결국 이 세상의 부부갈등은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그리스도인 부부의 갈등도 결국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8] 가정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부의 갈등은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39] 개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부부의 언약도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잠 2:17, 4:8–9). 부부의 언약을 깨뜨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37) 설은주, 『가정사역론』(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28.
38) 김용수, "성경적 가정을 위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갈등 원인 및 성경적 갈등 해결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21.
39) Kraft,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172–174.

www.kci.go.kr

것이기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잠 2:17). 반면에 부부의 언약을 굳게 지킨 자는 서로에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잠 4:8-9). 성경은 모든 갈등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갈등이 유익할 수 있다. 갈등은 각기 다른 성격과 환경에서 만난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의견 차이를 적절하게 다루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3) 자아탄력성

(1) 자아탄력성의 개념이해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의 개념은 스트레스나 역경 혹은 위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효율적인 적응을 위하여 상황에 맞게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모든 노력을 말한다. 즉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사건에 대한 풍부한 개인적 적응능력이다.[40] 그러므로 자아탄력성을 가진 사람은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41] 응집력이 강하고, 삶의 의미가 있으며, 운명을 통제할 수 있으며,[42]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풍부한 적응능력이며, 인지사회 개인영역과 관련한 문제해결에서의 융통성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43]

김효은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감정조절능력(emotional regulation)

---

40) J. H. Block &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ed. W. A. Collins(Hillsdael, NJ.: Erlbaum1980): 39-54.

41) N. Garmezy,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 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no. 4 (1991): 416-430.

42) Block & Block,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315-327.

43) 오윤선,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1권(2013): 199.

www.kci.go.kr

과 긍정적 미래 지향성(positive future orientation), 창의성 추구(novelty seeking) 또는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44] Block & Block는 자아탄력성을 지닌 사람 의 특성은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을 지닌 낙관성을 지니고 있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내적 통제감과 자신을 가치롭게 인정하며, 긍정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45] 조혜숙의 연구에서 자기-통제 수준을 조절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도 잘 적응하고, 당혹스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꼭 이루어내고야 마는 인내심을 지니고 있다.[46] 오명자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은퇴라는 심리적 위기나 새로운 상황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조절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47]

⑵ 자아탄력성의 기독교적 이해

강연정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자아탄력성은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문제에 대처하면서 길러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회복력, 유연성, 적응력 또는 탄력성' 으로 정리하였다. 성경적인 자아탄력성을 증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젼,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 책임감, 배려와 이타적인 돌봄, 용서와 화해 등을 실천할 때 자아탄력성은 증진된다고 한다.[48] 또한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

44) 김효은,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 역기능적 태도,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대학원, 2012), 36.

45) Block &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315-327.

46) 조혜숙, "중 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역할", 한국생애학회, 「생애학회지」 제3권 2호(2013): 17-19.

47) 오명자, "은퇴한 노인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및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2010), 50-51.

48) 강연정, "교회 위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기독교 교육상담적 접근,"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2): 53-57.

www.kci.go.kr

이 높은 사역자일수록 사역의 태도 및 위기대처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9]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 중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인물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있다(창 12:25).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창 12:4),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과정에 외적 내적으로 오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 기근 등과 맞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자신을 통제하는 적응력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창 12장-25장). 그리고 꿈(창 37:5-11)을 지니고 있었던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 온갖 고난과 역경, 그리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가족과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심(창 50:20)을 바라보았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다.[50]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히브리인으로 겪어야 했던 내적인 갈등과 시대적 위기상황 속에서 출생의 비밀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과 혼란으로 인한 갈등, 동포애, 두려움과 불안(출 2:14-15) 등 여러 외적, 내적으로 휘몰아치는 고난을 겪으며, 백성을 이끈 리더자이다.[51]

다윗은 가족들도 인정이나 기대를 하지 않았던 지극히 평범한 어린 목동이었으나,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하였다(삼상 17:36-37).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신실한 믿음은 사울의 온갖 살해 음모와 질투로 10여 년 동안을 도피생활 하였다.

그는 역경가운데서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통일 왕국의 정치적, 종교적, 기반을 든든히 다지며, 예수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

49) 오윤선,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 216.
50) 김미경,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위한 기독교상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7권(2011): 86-87.
51) 오윤선, 『청소년! 이젠 이해할 수 있다』 (서울: 예영 B & P, 2008), 255-256.

www.kci.go.kr

되었다(시 63:3; 마 1:1). 신약에서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대표적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4) 성적친밀감

⑴ 성적친밀감의 개념이해

부부의 성적친밀감이란 배우자와의 성적활동(sexual activity)을 나누는 과정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부부사이에서 경험하는 성적인 의미의 표현과 행동 그리고 여기서 비롯되는 정서적 측면을 포함한다.[52] Schnarch는 부부의 성생활에 있어서도 만족이란 성교 횟수나 성행위의 빈도보다는 친밀감을 바탕으로 서로 의사를 존중하고 합의에 의해 서로의 욕구가 잘 받아들여진 상태라 할 수 있다.[53] 이영실은 법적인 혼인 관계 하에 있는 부부가 육체적인 성적 관계를 가지는 빈도 및 수준으로 정의하였다.[54] 그러나 성한기, 손영화 등은 부부간의 성이란 결혼생활의 핵심요소이고 중요한 관심사로, 결혼관계의 결속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성적 부적응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55] 그러므로 성적친밀감의 저하는 부부갈등을 심화시키고 부부갈등이 심화될수록 자녀에게 부정적 정서반응을 줄 수 있다.[56] 본 연구에서 성적친밀감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성욕(sexual desire)과 성적 흥분(sexual excitement), 성적 기술(sexual technical), 성적 느낌(sexual feeling), 성적 만족(sexual

---

52) 이희숙, "성인 애착과 결혼 만족간의 관계 : 보살핌, 성적친밀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2008), 8.

53) D. Schnarch, "Passionate Marriage: How Couples Behave in Bad is a Remarkably Authentic Expression of their Emotional Connection–or Lack of It," *Family Therapy Networker* 21, no. 5 (1997): 42–49.

54) 이영실,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제 요인과 성생활 불만족 정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학회지」 제15권(1990): 155–184.

55) 성한기 · 손영화, "기혼여성의 성가치관이 결혼만족 혼외 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제12권(2007): 175–196.

56) 정현숙,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의사소통 및 성적 친밀감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대학원, 2009), 34–35.

www.kci.go.kr

gratification), 신뢰 관계(fiduciary relation) 등으로 구분한다. 성욕은 오감 중 시각이나 청각, 촉각 자극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고[57] 성적 흥분은 타인의 신체를 보거나 만지는 것 등에 대한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다. 즉, 부부가 키스를 하거나 애무를 할 때, 모든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58] 성적 기술은 인간의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부부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59] Byers와 Demmons는 부부간에 자신의 성적인 욕구나 성적인 선호, 기피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기노출을 하는 것이 그만큼 부부 사이의 신뢰감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한다. 부부간에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부간의 함의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성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부 관계의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60]

⑵성적친밀감의 기독교적 이해

하나님께서 성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요소가 된다.[61]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따라서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적 존재로 살아간다.[62] 이처럼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목적은 첫째는 종족을 보전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행복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적 가정이 세워지는 기본 원리이며,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하는 것이 성경적 가정의 가장 기

57) 서선영, "한국 부부들의 성 이야기"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6), 10.
58) 윤가현,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2009), 159-160.
59) S. B. Levin, "Marital Sexual Dysfunction: Introductory Concept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83 (1976): 448-453.
60) E. S. Byers & S. Demmons, "Sexual Satisfaction and Sexual Self-Disclosure within Dating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6, no2 (1999): 399-410.
61) 설은주, 『가정사역론』, 31.
62) O. Palmer Robertson, *The Genesis of Sex: Sexual Relationships in the First Book of the Bible*, 강규성 역, 『성의 시작』 (서울: CLC, 2006), 8.

www.kci.go.kr

본적인 요소이다.

Otto Piper는 성경적 부부생활에 대한 기준(창 1:28, 2:18-25)을 전체적으로 제시해준다. 첫째, 결혼을 통한 성적 결합이란 두 사람이 평생을 지속하게 된다. 둘째, 부부의 완전한 결합은 친교의 생활을 통한 공동생활인 가정이다. 셋째, 육체의 결합이란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하는 것이다(출 21:10; 고전 7: 4-5; 살전 4:4). 넷째, 자녀를 가지고 싶은 욕망인데 이것은 부모에게 위탁한 책임성과 자유성에 관련된 결단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창조적 결혼은 일부일처주의를 의미한다(창 2:23-24; 마 5:27-28, 19:6-9; 막 10:8-9). 여섯째, 부부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 되는 원리이다(창 2:24; 마19:4-5). 창세기에 근거한 부부가 된 부부일체로써의 윤리적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63]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사적인 관계가 부부관계이며, 부부관계 안에서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 성생활이기 때문에 성적친밀감이 중요하다. 성생활이 부부관계의 전부는 아니지만 부부가 부부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부부의 성관계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64] 그 증거로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중요도에서 성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65]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

63) Otto A. Pipero, *The Biblical View of Sex and Marriage*, 강한표 · 전경연 역, 『성과 결혼에 대한 성서적 견해』 (서울: 기독교서회, 1976), 190-203.

64) E. Brunner, *The Divine Imperative* (London: Lutter Worth Press, 1937), 345.

65) 김희진,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2005): 877-906.

향에서 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의 매개효과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로써 조사연구 방법이 적용된다. 본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1차 예비조사 2014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94명을, 2차 예비조사 201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26명을,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5세까지의 기독교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신뢰도 지수가 충분히 높다고 평가되어 본 조사에 적극 활용하였다. 본 조사의 표집대상을 2014년 3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서울 8교회, 경기 5교회, 충남 2교회, 경남 1교회 인천광역시 2교회, 18개 교회에 확률표본 추출방식에 의해서 무작위 표집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조사는 총 10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725부가 회수되었으나 지나치게 극단적인 응답 경향을 보이거나 무응답 항목이 있는 질문지 35부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690부를 최종 분석되었다.

2) 조사도구의 구성과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법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의 5점 Likert척도이며, 전체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값이 .89로 매우 높은 신뢰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도출된 요인의 총 분산 설명력은 67.1, KMO는 .81, Bartlett 구상성 검정은 (Chi-Square=2926.01), 유의확률은 Sig=p<.001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각 변수별 척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⑴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엄정희(2009)가 사용한 전체 30문항 중 10문항을 Satir의 의사소통유형 검사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수정된 문장을

www.kci.go.kr

재구성하고 정교화시켜 두 차례 예비 검증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회유형 6문항, 비난형 6문항, 초이성형 5문항, 산만형 6문항, 일치형 5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KMO는 .901, Bartlett 구상성 검정은 (Chi-Square=1794.98), 유의확률은 Sig=p〈.001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용된 척도에 대한 점수의 응답 범위는 1～140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신뢰도의 총 Cronbach's α계수는 .798로 높은 편이다. 이상과 같은 각 척도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⑵ 부부갈등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부갈등 척도는 서정숙(2010)이 사용한 32문항에 대하여 두 차례 예비 검증을 거쳐 재구성하고 정교화하였고, 최종적으로 개인적 요인 5문항, 제삼자적 요인 4문항, 경제적 요인 2문항, 부부관계적 요인 8문항, 총 19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부부갈등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 값은 p〈.5부터 나타났으며, 도출된 요인의 총 분산 설명력은 60%, KMO는 .90, Bartlett 구상성 검증은 (Chi-Square=889.01), 유의확률은 Sig=p〈.001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본 척도의 응답 범위는 1～95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용된 척도에 대한 내적 신뢰도의 총 Cronbach's α계수는 .752로 높은 편이며, 변이별 Cronbach' s α계수는〈표 1〉과 같다.

⑶ 자아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 기독 중년 부부의 자아탄력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Atsushi, Hitoshi, Shinji와 Motoyuki(2002)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에서는 정은옥(2006)이 번안하여 16개 문항에 대하여, 두 차례 예비 검증을 통해 정교화 시켰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구성된 척도는 긍정적 미래지향성 5문항, 감정조절 6문항,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4문항 총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www.kci.go.kr

결과 요인적재 값이 p<.5부터 나타났으며, 타당도가 낮은 문항은 제거하였다. 도출된 요인의 총 분산 설명력은 58%, KMO는 .91, Bartlett 구상성 검정은 (Chi-Square=1355.47), 유의확률은 Sig=p<.001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응답 범위는 1~75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척도의 내적 신뢰도의 총 Cronbach's α계수는 .876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변이별 Cronbach's α계수는 〈표 1〉과 같다.

(4) 성적친밀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희숙(2008)이 번안하여 적용한 척도를 재수정 보완한 척도 17문항과 서정숙(2010)의 부부갈등 척도 중 부부 성생활 척도 4문항에 5점 Likert 척도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이희숙이 유형별 신뢰도를 검증 한 결과 모든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5였고 서정숙이 성생활 29~32번 문항의 내적 신뢰도의 검증은 총 Cronbach' s α계수 .90로 매우 높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이희숙이 사용한 17문항과 서정숙이 사용한 4문항 그리고 본 연구자가 9문항을 추가하여, 5개의 하위변인으로 성욕, 성적만족, 성적기술, 성적느낌, 신뢰관계로 구성하였고, 두 차례 예비 검증을 거쳤다. 성적친밀감 요인분석 결과 요인 적재 값이 p<.5부터 나타났으며, 도출된 요인은 성욕, 성적만족, 성적기술, 성적느낌, 신뢰관계로 구분되었다. 총 분산 설명력은 57.26%, KMO는 .90, Bartlett 구상성 검정은 (Chi-Square=889.01), 유의확률은 Sig=p<.001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응답 범위는 1~150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성적친밀감이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성 된 척도에 대한 내적 신뢰도의 총 Cronbach' s α계수는 .924로 매우 높으며, 변이별 Cronbach's α계수는 〈표 1〉과 같다.

www.kci.go.kr

〈표 1〉 조사도구 신뢰도

*는 역채점 문항임

	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의사소통	회유형	6	2, 3, 5, 8, 11, 18	.782
	비난형	6	6, 14, 20, 22, 25, 27	.788
	초이성형	5	1, 9, 23, 26, 28	.626
	산만형	6	4, 12, 15, 16, 19, 21	.656
	일치형	5	7, 10, 13, 17, 24	.743
	전체	28	28	. 798
부부관계	개인적요인	5	1–5	.833
	부부관계요인	8	12–19	.849
	제삼자요인	4	6–9	.892
	경제적요인	2	10–11	.918
	전체	19	19	.752
자아탄력성	긍정적미래	5	3, 6, 10, 13, 15	.874
	감정조절	6	2, 5, 7*, 9, 12, 14*	.715
	흥미와 관심	4	1, 4, 8, 11.	.863
	전체	15	15	.876
성적친밀감	성욕	6	1, 6, 11*, 16*, 21, 26* 6	.762
	성적만족	6	2, 7, 12*, 17, 22, 27	.803
	성적기술	6	3, 8, 13, 18, 23, 28	.757
	성적느낌	6	4*, 9, 14, 19*, 24*, 29	.715
	신뢰관계	6	5*, 10, 15*, 20, 25, 30*	.765
	전체	30	30	.924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Win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AMOS 21.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및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첫째,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적합치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고,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분석방법은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법을 사

www.kci.go.kr

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척도 내 하위 요소별 문항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선출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검증에서 척도 요인들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변인의 분석결과에 따른 도형제시를 위해 AMOS 21.0을 사용하였고, 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계수를 제시하여 부부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에 매개변인의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여섯째, 매개효과 검증에는 Baron과 kenny(1986)의 방법과 Sobel (1982)의 계산을 응용한 통계적인 수치(Test Statistic: Mackinnon et al., 2002)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곱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5%이상으로 하였다.

3. 연구의 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기독교 중년부부로 총 690명이었으며, 그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9〉와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309명(44.8%), 여자 381명(55.2%)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은 40～45세가 196명(28.4%)으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46～50세가 157명(22.8%), 51～55세가 143명(20.7%), 56～60세가 120명(17.4%), 61～65세가 74명(10.7%)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주지역은 서울이 267명(38.7%)으로 1/3 이상이었고, 경기 지역 137명(19.8%), 인천광역시 95명(13.8%), 강원지역이 48명(7%), 충청지역 69명(10%), 경상지역 43명(6.2%), 기타 지역 31명(4.5%)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앙생활기간은 20년 이상이 350명(50.7%)로 높게 나타났

www.kci.go.kr

으며, 1년 미만이 35명(5.1%), 1～5년 62명(9%), 6～10년 114명(16.5%), 11～15년 43명(6.2%), 16～20년 86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회 내 직분은 집사가 400명(58%), 평신도가 120명(17.4%), 권사가 81명(11.7%), 장로 18명(2.6%), 목회자 44명(6.4%), 기타 27명(3.9%)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결혼 지속기간은 1～5년 45명(6.5%), 6～10년 81명(11.7%), 11～15년이 147명(21.3%)으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16～20년 123명(17.8%), 21～30년 213명(30.9%), 31년 이상 된 부부도 81명(11.7%)로 나타났다. 일곱째, 결혼 유형은 초혼이 대부분인 662명(95.9%)로 나타났으며, 재혼 28명(4.1%)로 나타났다. 여덟째, 총 자녀수는 2명이 438명(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명 123명(17.9%), 3명 103명(15%), 4명 23명(3.3%), 6명을 둔 부부도 3명(.4%) 순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수입은 310～400만원이 178명(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10～300만원이 129명(18.7%), 200만원 미만 77명(11.1%), 410～500만원(18%), 510～600만원 68명(9.8%), 610～700만원 39명(5.7%), 710～800만원 23명(3.3%), 810～1000만원 24명(3.5%), 1000만원 이상 28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직업은 전문직이 168명(24.3%), 사무직 93명(13.5%), 자영업 83명(12%), 서비스업 68명(9.9%), 전업주부 180명(26.1%), 기타 98명(14.2%)로 나타났다. 열한 번째, 학력은 대졸이 354명(51.3%)으로 높은 교육수준이었으며, 고졸 193명(28%), 중졸 37명(5.4%), 대학원 석사 92명(13.3%), 대학원 박사 8명(1.1%)로 나타났다.

www.kci.go.kr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N=690)

구 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309	44.8%	결혼 유형	초혼	662	95.9%
	여	381	55.2%		재혼	28	4.1%
연령	40–45세	196	28.4%	자녀수	1명	123	17.8%
	46–50세	157	22.8%		2명	438	63.5%
	51–55세	143	20.7%		3명	103	15.0%
	56–60세	120	17.4%		4명	23	3.3%
	61–65세	74	10.7%		6명	3	.4%
거주 지역	서울	267	38.7%	수입	200만원미만	77	11.1%
	경기	137	19.8%		210–300만원	129	18.7%
	인천	95	13.8%		310–400만원	178	25.8%
	강원도	48	7.0%		410–500만원	124	18.0%
	충청도	69	10.0%		510–600만원	68	9.8%
	경상도	43	6.2%		610–700만원	39	5.7%
	기타	31	4.5%		710–800만원	23	3.3%
신앙 생활 기간	1년미만	35	5.1%		810–1000만원	24	3.5%
	1–5년	62	9.0%		1000만원이상	28	4.1%
	6–10년	114	16.5%	직업	전문직	168	24.3%
	11–15년	43	6.2%		사무직	93	13.5%
	16–20년	86	12.5%		자영업	83	12.0%
	20년이상	350	50.7%		서비스업	68	9.9%
교회내 직분	평신도	120	17.4%		전업주부	180	26.1%
	집사	400	58.0%		기타	98	14.2%
	권사	81	11.7%	학력	중졸	37	5.4%
	장로	18	2.6%		고졸	193	28.0%
	목회자	44	6.4%		대졸	354	51.3%
	기타	27	3.9%		대학원석사	92	13.3%
결혼 지속 기간	1–5년	45	6.5%		대학원박사	8	1.1%
	6–10년	81	11.7%		기타	6	.9%
	11–15년	147	21.3%	합계	690명(100%)		
	16–20년	123	17.8%				
	21–30년	213	30.9%				
	31년이상	81	11.7%				

www.kci.go.kr

2) 의사소통유형, 부부갈등, 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단위별 척도들에 대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가설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 간 관계성에 대한 즉, 의사소통유형, 부부갈등, 자아탄력성, 성적친밀감에 대한 체계적인 윤곽을 제시해준다. 첫째, 부부의사소통 유형과 부부갈등과의 상관관계는 (r〈.013～.273)으로 (p〈.05과 p〈.01)수준에서의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부부의사소통과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는 (r〈−.004～.349)으로 (p〈.05과 p〈.01)수준에서의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별히 일치형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탄력성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부부의사소통과 성적친밀감과의 상관관계는(r〈−.001～.287)으로 (p〈.05과 p〈.01)수준에서의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비난형·산만형 의사소통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부간의 성적친밀감 수준이 낮아지는 반면, 일치형 의사소통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부간의 성적친밀감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회유형과 초이성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탄력성과 부부갈등과의 상관관계는 (r〈−.073～−.189)으로 (p〈.05과 p〈.01)수준에서의 유의한 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과 흥미관심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부갈등과 성적친밀감과의 상관관계는(r〈−.043～−.328)으로 (p〈.05과 p〈.01)수준에서의 유의한 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수준이 높을수록 성적친밀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사소통이 일치적일수록 부부갈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 수준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www.kci.go.kr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통계적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성변인들의 이론적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것은 두 개의 단계 즉, 측정모형 검증과 구조모형 검증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의사소통유형,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부부갈등의 구성개념으로 타당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변수는 각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모형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 제안모형의 적합수준, 즉 모형의 복잡성과 객관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등을 사용한다. 측정모형에 따른 확인적 요인 분석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모형에 따른 확인적 적합도 지수

χ^2	RMSEA	Q값	NFI	CFI	GFI	AGFI	TLI	Delta 2
673.37	.06	5.85	.917	.942	.950	.934	.913	.943

df=115

4) 연구 모형의 판별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성요인별로 의사소통유형, 부부갈등, 자아탄력성, 성적친밀감의 네 변인에 대해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어느 정도로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www.kci.go.kr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경로의 유의성은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대한 보다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 모형의 판별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식에 따른 판별타당도 분석은 〈표 4〉과 같다.

〈표 4〉 판별타당도 분석

분석절차	판정기준
1. CFA 적합도 지수의 적절성	
2. 의 유의성 • 비표준화의 C.R. ≥ 1.96, 역항목일 경우 C.R. ≤ −1.96 • 비유의한 를 가진 관측변수는 제거, CFA 다시 시작	
3. 「표준화 ≥ 0.7」= 「개별관측변수 신뢰성(=) ≥ 0.5	신뢰성 타당성 기준 동일
4. 표준화로 각 요인(잠재변수)의 개념신뢰성, AVE 계산 • 개념신뢰성, 개념신뢰성 ≥ 0.7 • AVE, AVE ≥ 0.5	신뢰성 인정
5. 요인 A와 B의 상관계수의 제곱(SMC) • SMC < AVE • SMC < AVE	타당성 인정

5)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적합도는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모형에서 설정된 각 변수들 간의 경로관계를 검증하는 구조회귀분적 및 경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적합도 지수에서는 수용수준 .90 이상에서 모두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어진 모형에 대해서 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음을 증명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www.kci.go.kr

〈표 5〉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연구모형	수용수준
절대적 적합도 지수	χ^2 값(p)	605.95 (p<.001)	계산된 χ^2값과 임계치를 비교
	Q	5.269	
	GFI	.944	.90 이상 우수
	RMR	.041	.05 이하 우수
	RMSEA	.035	.10 이하 적합 .05 이하 매우 적합
	AGFI	.931	.90 이상 우수
상대적 적합도 지수	TLI	.932	.90 이상 우수
	NFI	.942	.90 이상 우수
	CFI	.931	.90 이상 우수
	IFI	.919	.90 이상 우수

6) 연구모형을 통한 경로관계 검증

(1) 직접 영향을 주는 모형검증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서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결과는 두 변수 전체 값의 표준화 값이 1.10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 값의 결과는 비난형−1.675(p<.001), 초이성형−.688(p<.001), 산만형.332(p<.05), 일치형 1.704(p<.001)로 부적(−) 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유형 표준화계수 값은 .122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서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결과는 두 변수의 전체 값을 적용 · 분석한 결과 표준화 값이 .347로 나타남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 값의 결과는 비난형−.649(p<.001), 초이성형.267(p<.001), 산만형−.187(p<.05), 일치형 .636(p<.001)로 부적(−) 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유형 표준화계수 값은 −.07로

www.kci.go.kr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서 부부간의 성적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결과는 두 변수의 전체 값을 적용 · 분석한 결과 표준화 값이 .604로 나타남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 값의 결과는 회유형−.101(p〈.05), 비난형−.174(p〈.001), 초이성형 −.123(p〈.01), 산만형−.14(p〈.01), 일치형.249(p〈.001)로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기능적 의사소통인 일치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이 성적친밀감도 높다고 하겠다.

기독교 중년부부의 낮은 자아탄력성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두 변수의 전체 값을 적용 · 분석한 결과 표준화 값이 −2.58로 나타남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준화계수 값의 결과는 부부간의 개인적 갈등 −2.58 (p〈.001), 부부간의 관계적 갈등−2.47(p〈.001), 부부간의 제삼자적 갈등−2.18 (p〈.001), 부부간의 경제적 갈등2.05(p〈.001)로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부부갈등 유형에 대한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본다.

기독교 중년부부의 낮은 성적친밀감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두 변수의 전체 값을 적용 · 분석한 결과 표준화 값이 −.187로 나타남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준화계수 값의 결과는 부부간의 개인적 갈등−2.53(p〈.05), 부부간의 관계적 갈등−.319(p〈.001), 부부간의 제삼자적 갈등−.108(p〈.05), 부부간의 경제적 갈등 −.169(p〈.001)로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www.kci.go.kr

〈표 6〉 연구모형 검증 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p
부부갈등요인	←	**의사소통유형**	**1.10**	**-3.500**	**.021**	**2.20***	**0.024**
부부관계	←	회유형	0.122	0.15	0.19	0.789	0.43
부부관계	←	비난형	-1.675	-2.475	0.575	-4.307	***
부부관계	←	초이성형	-0.688	-0.984	0.303	-3.243**	0.001
부부관계	←	산만형	0.332	0.489	0.24	2.036*	0.042
부부관계	←	일치형	1.704	2.135	0.495	4.311	***
자아탄력성	←	**의사소통유형**	**.347**	**.925**			
자아탄력성	←	회유형	-0.07	-0.023	0.02	-1.136	0.256
자아탄력성	←	비난형	-0.649	-0.221	0.03	-7.277	***
자아탄력성	←	초이성형	0.267	0.104	0.026	4.004	***
자아탄력성	←	산만형	-0.187	-0.096	0.025	-1.94	0.046
자아탄력성	←	일치형	0.636	0.255	0.035	7.211	***
성적친밀감	←	**의사소통유형**	**.604**	**1.291**	**.182**	**7.077**	***
성적친밀감	←	회유형	-0.101	-0.055	0.025	-2.217	0.027
성적친밀감	←	비난형	-0.174	-0.097	0.026	-3.78	***
성적친밀감	←	초이성형	-0.123	-0.078	0.029	-2.685	0.007
성적친밀감	←	산만형	-0.14	-0.092	0.03	-3.064	0.002
성적친밀감	←	일치형	0.249	0.163	0.031	5.301	***
부부갈등	←	**자아탄력성**	**-.295**	**-.387**	**.105**	**3.702**	***
개인차원	←	자아탄력성	-2.589	-7.887	1.96	4.024	***
부부관계	←	자아탄력성	-2.472	-9.102	2.267	4.015	***
제삼자	←	자아탄력성	-2.187	-7.745	1.949	3.973	***
경제요인	←	자아탄력성	-2.052	-8.76	2.221	3.945	***
부부갈등	←	**성적친밀감**	**-.187**	**-.306**	**.162**	**1.988**	**.050**
.개인차원	←	성적친밀감	-0.253	-0.47	0.091	-5.163	***
부부관계	←	성적친밀감	-0.319	-0.717	0.113	-6.333	***
제삼자	←	성적친밀감	-0.108	-0.234	0.106	-2.202	0.028
경제요인	←	성적친밀감	-0.169	-0.44	0.131	-3.351	***

(2) 매개효과 영향을 주는 모형검증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갈등 사이에 자아탄력성의

www.kci.go.kr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 Sobel Test[66]에 의한 유의성 검정방식(Z = ab / sqrt bs+as)을 사용하여 경로계수를 산정한 결과는 비난형 .31(z=5.61), 초이성형 .12(z=2.74), 산만형 −.06(z=2.04), 일치형 −.31(z=4.61)이 부적(−) 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의 경우에는 비난형 −1.69, 초이성형 −.62, 산만형 .44, 일치형 1.80으로,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에 속한 일치형이 정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회유형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갈등 사이에 성적친밀감의 매개효과의 경로계수를 산정한 결과 비난형 .49(z=5.66), 초이성형 .20(z=5.46), 산만형 −.09(z=2.14), 일치형 −.50(z=6.32)이 부적(−) 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의 경우에는 비난형 −1.67, 초이성형 −.68, 산만형 .33, 일치형 1.70으로,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에 속한 일치형이 정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회유형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구조모형의 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의 매개효과

변인	indirect effects	direct effects	total effec
회유형	−0.02	0.13	0.11*
비난형	0.31***	−1.69***	−1.38***
초이성형	0.12***	−0.62**	−0.50***

66) Sobel에 의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정방식(Z_{ab} = ab / sqrt $b^2s_a^2+a^2s_b^2$)을 사용하여 직접 산출하였다. Sobel 검정에서 분자는 예언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a)의 표준화되지 않은 회귀계수와 매개변인에서 결과변인으로 가는 경로(b) 표준화되지 않는 회귀계수의 곱이다. 분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s)를 나타내며 분모의 s_a와 s^b는 표준화되지 않은 회귀계수 a와 b에 대한 각각의 표준오차 값이다. Z_{ab}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산만형	−0.06*	0.44*	0.38**
일치형	−0.31***	1.80***	1.49***
회유형	−0.03	0.12	0.08*
비난형	0.49***	−1.67***	−1.18***
초이성형	0.20***	−0.68**	−0.48***
산만형	−0.09*	0.33*	0.23***
일치형	−0.50***	1.70***	1.20***

*p<.05 **p<.01 ***p<.001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기독교 중년부부의 지속적인 부부갈등은 신앙성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가족해체로 점점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이 부부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중년부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이 부부갈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이 기독교 중년부부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연구의 측정변수들 사이의 경로관계 가설검증은 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direct effect)을 미치는 분석과 다른 변수에 의해 매개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부부의사소통유형은 부부갈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둘째, 부부갈등에 자아탄력성이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셋째, 부부의사소통이 성적친밀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넷째, 부부의 낮은 자아탄력성은 부부갈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다섯째, 부부의 낮은 성적친밀감은 부부갈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여섯째, 부부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간접효과가 있음

www.kci.go.kr

이 검증되었다. 일곱째, 부부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적친밀감이 간접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기독교 중년기 부부들의 의사소통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순기능적 의사소통에 따라서 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 영향을 미치며 부부갈등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부갈등에 있어서 기독교인 또한 비기독교인과 동일하게 의사소통유형, 자아탄력성, 성적친밀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기독교 중년부부들을 돕는 기독상담사역자는 부부의사소통 향상과 자아탄력성, 성적친밀감 향상을 부부관계에 중요하다는 점과 임상장면에서 부부의사소통 훈련, 자아탄력성 증진, 성적친밀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현재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프로그램의 활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서울 및 지방주요도시 40～65세로 한정되었으므로 연구결과의 다양한 지역과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변인들의 영향력과 매개 변인은 양적연구였으나 향후에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연구나 질적 연구방법 등을 활용되기를 바라며, 예방과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전문프로그램 연구가 실시되었으면 한다.

www.kci.go.kr

【 참고문헌 】

강연정. “교회 위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기독교 교육상담적 접근”.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복음과 상담」제18권(2012): 43-76.

권윤아 · 김득성.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인지행동적관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대한가정학회지」제49권 7호 (2011): 67-80.

김남진 · 김영희.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한국가족관계학회.「가족관계학회지」제15권 1호(2010): 197-225.

김미경.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위한 기독교상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복음과 상담」제17권(2011): 73-100.

김영애.『사티어의 빙산의사소통』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2012.

김영애.『인간관계 및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사티어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2004.

김용수. “성경적 가정을 위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갈등 원인 및 성경적 갈등 해결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2.

김정민. “Satir 부부관계향상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한국가족치료학회지」제19권 2호(2011): 19-40.

김효은.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 역기능적 태도,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우울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김희진.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상담 및 심리치료」제17권 4호(2005): 877-906.

서선영. “한국 부부들의 성 이야기”.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6.

서정숙. “부모 부부갈등과 기혼자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 태도와 기혼자녀의 자아탄력성, 성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

www.kci.go.kr

대학원, 2010.
설은주.『가정사역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성한기 · 손영화. “기혼여성의 성가치관이 결혼만족 혼외 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지」제12권 2호(2007): 175−196.
송정아. “이마고 부부치료 모델 내용의 타당성과 적용 효과성 연구”. 대한가정학회.「대한가정학회지」제44권 4호(2006): 5−18.
신연식.『결혼생활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서울: 기독지혜사, 1993.
엄정희.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부 자아개념 및 부부 응집성, 부부의사소통과의 경로모형 분석”.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대학원, 2009.
오명자. “은퇴한 노인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및 자아 탄력성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2010.
오윤선.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복음과 상담」제21권 (2013): 189−220.
오윤선.『청소년! 이젠 이해할 수 있다』. 서울: 예영 B & P, 2008.
오윤선.『힐링과 행복코칭』. 서울: 예영 B&P, 2014.
유 옥. “결혼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한 신혼기 부부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개발과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대학원, 2010.
유승하. “부부의 갈등해소양식 변화에 미치는 의사소통 기술훈련과 신념변화 훈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대학원, 1996.
윤가현.『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2009.
이경순 · 최외선. “효과적인 부부상담을 위한 성숙한 커뮤니케이션 방안모색”. 한국가족복지학회.「한국가족복지학회지」제9권 1호(2004): 117−133.
이선미 · 전귀연.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관리학회.「한국가정관리학회지」제19권 5호(2001), 203.
이영실.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제 요인과 성생활 불만족 정도”. 한국사회복지학회.「사회복지학회지」제15권 4호(1990): 155−184.
이옥선. “크리스찬 기혼 여성들의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화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기독교대학원, 2010.

www.kci.go.kr

이희숙. "성인 애착과 결혼 만족간의 관계: 보살핌, 성적친밀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2008.

정순례. "교회 내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2005.

정현숙.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의사소통 및 성적 친밀감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대학원, 2009.

조준배. "경제적 스트레스요인이 부부갈등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제27권(2009): 153-174.

조혜숙. "중 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역할". 한국생애학회. 「생애학회지」 제3권 2호(2013): 1-19.

통계청. 인구동향 / 이혼지표. www.nso.go.kr

Allen, T. D., R. C. Johnson, K. N. Saboe, E. Cho, S. Dumani, & S. Evans. "Dispositional Variables and Work-Family Conflict: A Meta-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no.1(2012): 1680-1683.

Block, H. & J. H. Block.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61, no. 4(2006): 315-327.

Block, J. H. &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Ed. W. A. Collins (Hillsdael, NJ.: Erlbaum, 1980): 39-101.

Block, J. H., &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no. 2(1996): 349-361.

Brunner, E. *The Divine Imperative*. London: Lutter Worth press, 1937.

Byers, E. S. & S. Demmons, S. "Sexual Satisfaction and Sexual Self-Disclosure within Dating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6, no. 2(1999): 399-410.

Chapman, Gary. *The Five Love Languages*. 최종훈 역. 『게리채프먼의 사랑의 언어』. 서울: 두란노, 2010.

Coleman, M.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timacy in Married Couples." Ph. D. diss. Pepperdine University, 1984.

Collins, G. R. *Christian Counseling*. 3rd ed. 정동섭 역.『크리스천 카운셀링』.

www.kci.go.kr

서울: 두란노. 2008.

Fincham, F. D. & L. N. Osbome.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 Retrospect and Prospect."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1993): 75-88.

Garmezy, N.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 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 34, no. 4(1991): 416-430.

Goldenberg, Irene & Goldenberg, Herbert. *Family Therapy: An Overview*. 2nd ed. Belmont, CA.: Wadsworth Inc., 1985.

Gottman, J. M.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993): 6-15.

Gouin, J. P., R. Glaser, T. J. Loving, W. B. Malarkey, J. Stowell, & C. Houts.. "Attachment Avoidance Predicts Inflammatory Responses to Marital Conflict." *Brain, Behavior, and Immunity* 23, no. 7(2009): 898-904.

Kraft, Charles, H.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박영호 역.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Levin, S. B. "Marital Sexual Dysfunction: Introductory Concept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83 (1976): 448-453.

Pipero, Otto A. *The Biblical View of Sex and Marriage*. 강한표 · 전경연 역. 『성과 결혼에 대한 성서적 견해』. 서울: 기독교서회, 1976.

Robertson, O. Palmer. *The Genesis of Sex: Sexual Relationships in the First Book of the Bible*. 2002. 강규성 역. 『성의 시작』. 서울: CLC, 2006.

Satir, V., J. Banmen, J. Gerber, & M. Gomori. *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Palo Alto, CA: Science & behavior books, Inc. 1991.

Satir. V. *People Making*.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1972.

Satir. V.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한국버지니아사티어 연구회 역. 『사티어 모델』. 서울: 김영애 가족치료 연구소,. 2000.

Schnarch, D. "Passionate Marriage: How Couples Behave in Bad is a Remarkably Authentic Expression of their Emotional Connection-

www.kci.go.kr

or Lack of It." *Family Therapy Networker* 21, no. 5(1997): 42-49.

Sobel, M. E.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 *Sociological Methodology* 13(1982): 290-312.

Woelz-Stirling, N., L. Manderson, M. Kelaher, & S. Gordon. "Marital Conflict and Finances among Filipinas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no. 6(2000): 791-805.

Young, M., G. Denny, T. Young, & R. Luquis. "Sexu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American Journal of Health Studies* 16(2000): 43-84.

www.kci.go.kr

【 Abstract 】

The Effect of Mid-Life Christian Couples Communication Styles on the Marital Conflict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Ego-Resilience and the Sexual Intimacy -

Soon Rye Jung
Korean Bibl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verify the effect of mid-life Christian couples' counter-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s on the marital conflic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ego-resilience and the sexual intimacy. First, the research analyzes the relevance of communication's subordinate variation factor to marital conflicts, ego-resilience, and sexual intimacy of mid-life Christian couples and its effect. Second, it analyzes if ego-resilience and sexual intimacy have mediating effects upon communication styles and marital conflict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mid-life Christian couples. The number of data collected was 690 in total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est result in this research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verified that direct influence of communication style, ego-resilience, and sexual intimacy on marital conflicts of mid-life Christian couples exists. Second,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exual intimacy upon the relationship of mid-life Christian couples' communication styles and marital conflicts are verified. But appeasement type, one of communication styles, has little influence on marital conflicts and ego-resilience. Also, appeasement type does not have meaningful influence on mediating effec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help solving the marital conflicts through investigating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n mid-life Christian couples' marital conflicts.

Key words: communication styles, marital conflicts, ego-resilience, sexual intimacy, mid-life couple.

www.kci.go.kr